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선정

전북도·완주군, 우수상 수상...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지원 등으로 도내 사회적기업 지속 증가

전북도가 2021년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완주군, 지난해 전주시에 이어, 올해 전북도와 완주군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우수상 수상으로, 전북도가 사회적경제 기반을 충실히 다져온 것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발굴·관리,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 및 우수사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위한 인재양성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최종 12개 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는 지난 2019년 사회적경제과 신설 이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 전북도와 완주군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우수상 수상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전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분과실무-사회적경제위원회 체계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운영, 전국 최초, 5개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3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전국 최초로 착공했으며, 전북 사

회적경제 전문유통지원센터 공모선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을 구축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치를 실현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성장기업 육성사업, 기자재·설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도내에 286개사(인증 165, 예비 121)가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도 2019년 1,539개사에서 2020년 1,748개사, 올해 1,851개사로 증가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적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육성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도,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 개최

20개국 70명 인플루언서 참여 '미식과 캠핑' 주제 해외 첫 홍보마케팅

20개국 70명의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전북의 맛을 세계 곳곳에 알린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2021 K-글로벌 캠핑 페스티벌'을 군산 청암산오토캠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역특화 국제 이벤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전북도가 '미식과 캠핑'을 주제로 한 해외 첫 홍보마케팅이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네팔, 니카라과, 라오스, 중국, 미국, 아르메니아, 브라질, 페루 등 20여 개국 70명 인플루언서들은 특산품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과정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올려 한국을 대표하는 미식 여행지 전북을 알렸다. 이날 제작된 '전북 미식여행' 영상은 전주의 비빔밥, 군산의 주먹밥(울외장아찌, 군산김)과 군산황금박대, 익산의 마릴살, 정읍의 귀리떡갈비, 남원

의 지리산휴게지 춘향 떡갈비, 김제의 한우크림 리조또, 완주의 생강 한과와 순두부찌개, 진안의 더덕 불고기, 임실의 치즈 퓨듀·치즈삼겹살구이 덮밥·치즈닭볶음, 순창의 미나리 연잎삼겹살, 가래떡꼬치 및 채소밥, 통들개 베이컨, 고창의 바지락죽과 초무침을 직접 만드는 과정과 시·군의 관광업무 담당자가 소개하는 관광 이야기가 담겨졌다. 전북도는 1박 2일 '전북 미식여행' 영상을 여행사 여행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집해 전북도 전담여행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여행사에 홍보하며, '단체관광상품(안심 방한관광)'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의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합의 문 서명 등 국제관광 시장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전북도의 대표 여행상품인 미식여행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도, 7월 학이시습의 날 특강 생활법을 분야 비대면 진행

전북도가 5일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예방접종 추진에 전념하고 있는 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의 과학화' 실천을 위해 학이시습의 날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7월 학이시습의 날에 실시할 특강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주우리 변호사가 '알기 쉬운 생활법률'이라는 주제로 상속절차, 부동산 계약,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도로교통법 관련 쟁점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입해서 유익한 법률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사전에 녹화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도의 코로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확진자 발생 상황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름철 방역 대책 추진에 집중하고, 휴가 나뉘 쓰기와 휴가지 거리두기 실천으로 도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7월 학이시습의 날 특강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법률 분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과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러시아 연해주, 교류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 온·오프라인 진행... 11월 우호 교류 협약키로

전북도가 러시아 연해주와 양 지역간 교류 공감대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는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도와 연해주(프리모르스키주)간 농업·관광·스포츠 분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농업과 관광을 주제로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업 세션에는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연해주 국립농업 아카데미 교수 및 전북도 농업정책 담당 공무원 등 4명이, 관광 세션에는 알렉산드르 라스킨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대 최영기 교수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민회 전북도 대외협력국장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교류점점의 축사에 이어, ▲1부 농업·관광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발표, ▲2부 음식 문화 교류 순으로 진행했다.

한민회 도 대외협력국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 지역의 강점과 정책적 특징을 융합한 협력 분야를 발굴해 '지역 간 교류'가 '국가 간 교류'를 견인하는 지방의 교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 올해 11월 양 지역 MOU 체결로 더욱 강화



전북도가 러시아 연해주와 양 지역간 교류 공감대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전북도-연해주 글로벌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된 교류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연해주 국제교류점점은 "양 지역간 협력 방안 모색 등 교류 이행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전북도와 여러 분야의 성공사례 및 정책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1부 농업 분야 발표자인 전북대 류경선 농업생명과학대학장은 '미래 농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연해주 국립농업 아카데미의 무히나 디나 발레리예브나 교수는 "농업 발전, 교류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주대 최영기 교수와 블라디보스톡경제 서비스대학교의 바라

비슈 올라 알레세예브나 교수가 맞춤형 관광상품 육성, 전략적 마케팅 강화, 양 지역 관광교류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관광교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도와 연해주 농업·관광 분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전북 삼라농정 및 전북 투어 패스, 양 지역 농업 현황, 대표 관광지 축제, 행사 등 상호 관광과 농업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부 문화교류 시간에는 수 원과화대 최은희 교수가 전북도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블라디보스톡 경제서비스 대학 쿠즈네초브 드미트리 빅토르비치 교수는 러시아 전통음식인 사슬리(꼬치 구이)를 소개하고,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유호상기자

전북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3주 연장

전북도가 태풍, 폭염, 한파 등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중 일부 품종에 대해 보험 가입기간을 3주간 연장한다.

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뱀장어, 메기, 향어 품종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희망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적조, 이상수온, 가뭄 등의 재해 피해에 대해 양식물은 물론, 시설물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보험 가입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산출액의 20%만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업 품목과 일부(특정) 지역만 가입할 수 있는 시범사업 품목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김, 뱀장어, 메기, 향어 등 4개 품종이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돼 가입할 수 있다.

양식재해보험은 품종과 시설 위치 등에 따라 가입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가입 전에 수협에 문의해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서재희 도 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재해에 따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활용해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여름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전북도가 여름철 어린이 돌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6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3월 신학기에 학교·유치원 급식소(326개소)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하절기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군 교육부와 합동으로 어

린이집 급식소 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기농산 결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예방법 등을 교사 및 학부모에게 안내해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